

수잔 솔티 “대북전단이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

북한자유주간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 21일 열려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회의는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앞으로 진행될 북한자유주간 일정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수잔 솔티 대표(북한자유연합), 박선영 이사장(사단법인 물방초),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 제성호 교수(전 한국외교부인권대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 문국한 대표(북한인권국제연대), 사와이 켄지 국장(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협력국) 등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수잔 솔티 대표는 “尹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가장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저와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높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목표가 있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먼저, 탈북민들이 많이 모이는 새터교회를 방문하여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둘째로 어제 강화도 교동 망향대를 방문

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물병과 풍선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오늘(21일) 오후에는 북한자유방송을 방문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장소이다. 북한인권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다”며 “진리가 사람을 해방시킨다. 우리의 일은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다.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인권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저는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한다.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자유 사회의 소식을 알겠는가”라며 “현재 중국 당국 감옥에 있는 탈북민들의 강제복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서 발언한 제성호 교수(전 한국외교부인권대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북한인권 문제가 시급하다. 인권운동 환경은 지난 2-3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폐지되어야



‘北의 자유를 위한 논의’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발표하는 서울 선언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박선영 이사장은 “서울 선언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겠다”며 “특히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이미 발표한 보호책임(R2P)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자신감 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법이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북한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인권 단체들이 ICC에 북한 감정을 제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한 가와사키 아야세 씨는 “전 세계적으로 재일교포 복송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그 당시 재일교포들이 일본과 북한의 협약에 의해서 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오류”라고 했

다. 아야세 씨는 “10만 명 가까이 북한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헌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6개의 단체가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조총련(朝總聯)이 재일교포들을 북한 측 배에 실었다는 일부는 인정했지만, 그 후에 북한 감옥에 억류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에 상소했고, 오

는 10월 30일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는 2018년 때까지는 건강했던 5명의 원고가 현재 고령자다. 사망한 이도 있으며, 나머지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관계자는 조총련(朝總聯)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총련은 현재 일본 내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청송하며 버짓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박상학 대표는 최근 강화도에서 물병과 풍선을 북한에 보냈음을 밝혔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도 문국한 대표(북한인권국제연대), 사와이 켄지 국장(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협력국) 등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다.

특별히 문국한 대표는 좋은 소식이 있다며 “수잔 솔티 대표와 처음으로 북한인권 관련 전시회를 한국에서 가졌고 성황리에 마쳤었다”며 “오는 2025년에 북한인권세계엑스포를 한국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 세계에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이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회의 중에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이 주관하는 ‘국토대행진’이 진행 중이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동참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장지동 기자

“제4차 NAP 초안, 차별금지법에 긍정적… 수정돼야”

복음법률가회·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신효성 박사(법학박사,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혜경 소장(가치세움연구소),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엘플러스 대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명재진 교수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차별금지법 찬성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제4차 NAP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

내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NAP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최종적인 수정에 차별금지법 찬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NAP의 문제점은 현행 법제도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인권 계획이라는 점에 핵심이 놓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동성혼의 금지이며 이러한 우리 법제에 맞지 않는 NAP 성소수자의 보호는 무책임하고 위법하다. 동성혼 금지 국가에서 동성혼을 부추기는 성소수자 인권강조는 향후 우리 법제와 충돌하여 심각한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지는 평등을 추구하

는 점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버려서 위헌이 된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의 파이를 나누고 있어서 평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유가 위축되고 소멸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많지만, 중복, 반복 입법으로 인해 이 법의 규제대상자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산·작정·신체 피해는 막중해진다”며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조항을 보면 ‘성별이란 남

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제3의 성을 사업현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와 작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제20조)는 종교선택(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 중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에 의해 동성애의 죄성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지는 기독교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끝으로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종교 뿐만 아니라 학문·예술, 표현의 자유와



복음법률가회와 동반연 등이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자유민주주의, 여성의 안전권,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이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반대해야 하며 제4차 NAP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의 표현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효성 박사가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제4차 NAP 수립 공청회 초안

은 6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 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서 구체적 자유권으로 1)생명권 2)신체의 자유 3)안전권 4)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5)표현의 자유 6)결사와 집회의 자유 7)사생활의 자유 8)거주와 이전의 자유 9)인격권 10)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참정권”이라고 했다. ▶13면에 계속 최승연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청약통장
무관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家!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층고 + 2룸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매일)
하우스키핑, 펫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타워 현황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제 특·아나산신막 위배 (주)한맥에셋 (주)코우드 시공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관을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옥상정식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행여건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사·장로 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 부결

제108회 총회 넷째날 정치부 보고… 찬반 토론 후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넷째날인 21일 정치부 보고가 있었다. 현의안 중 목사·장로 정년 만 75세 연장의 건을 다뤘는데 결국 부결됐다. 총대들은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대로하기로 결의했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 찬성 측은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로 하되, 교회 당화 소속 노회와의 협의에 따라 만 75세까지 목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는 “1992년 예정합동교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종신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규정하기로 헌법 수정을 결의했다. 정년 연장 반대 측 의견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신대 박성규 총장이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2033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들이 모두 목회 현장에 투신해도 합동 교단 산하 모든 교회를 커버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만 70세까지 목사·장로 정년을 유지하되, 나머지 5년 동안의 목회 활동은 교회 당회와 공동회의, 노회 허락하에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평북노회 신규태 목사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 교회들은 목회자 수급 보장 등 미래가 안 정됐다. 하지만 작은교회의 약 60%는 목



제108회 합동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회자 수급이 어려워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직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고 했다.

경일노회 송영식 목사는 “미국과 영국 장로교회는 목사·장로 정년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와의 협의에 따라 정년 없이 성도들과 화합하면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구노회 김경환 장로는 “목사·장로 정년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로의 연장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나머지 5년 동안 목회 활동 가능 여부를 개교회에 맡겨 결정하게 된다면, 성도 분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또 한국교회가 젊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노령화 문제가 생긴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말하는 목사·장로들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니 모순”이라고 했다.

서울남노회 최자용 장로는 “사회는 만 65세 정년 퇴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아름답게 물려나 본인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이라며 “그러나 사회보다 모범적으로 앞장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할 교회에서 현재 만 75세 정년 연장 안건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선 정년 연장에 대해 ‘기득권 유지 아니냐’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교회 재정 등 지교회들이 처한 많은 어려움을 고려해 성도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노회 박창식 목사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만 70세까지 목회하고 은퇴해야 한다. 우리 교단 후배 목회자들의 상황을 보라. 현재 후배 목회자들의 약 80% 이상은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은 기득권 문제”라며 “4050대 목회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못하고, 부목사로 활동하다 늙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연장을 논의하느냐”고 했다.

다만 목사·장로 정년 연장 찬반 측은 농어촌 교회 등 열악한 입지에서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 강단 공백이나 폐당위 상

황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연장하고자 입을 모았다.

정년 연장 찬성 측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는 “농어촌 교회 등 목사 장로 정년 만 70세 규정에 막혀 장로 수급이 어려워 폐당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목사 수급에 애를 먹는 까닭에 강단 공백이 속출하고 있다”며 “농어촌 교회의 폐당위와 강단 공백 사태를 막고자,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정년 연장 반대 측 서울남노회 최자용 장로는 “굳이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을 반영한다면, 농어촌 지역 등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곳이라면 특별 사항으로 헌법 수정을 통해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다”며 “중·대형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일괄 묶어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금권선거 방지 위한’ 선거법 개정안 가결

규칙부 검토와 보고 후 총회 결의하면 공식 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넷째

날인 21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서기 허은 목사) 보고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 방지 조항’이 신설된 선거법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은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규칙부에 이첩했고, 이후 검토를 거쳐 규칙부 보고와 총대들 결의를 받으면 공식 시행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제28조 선거운동의범위와 한계에서 3

항을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 남전도연합회 전국 여전도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조항 ‘있다에서 해당 개정안의 ‘없다로 변경한 것이다.

또 “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금지기간’ 항목도 아래와 같이 추가됐다.

①총회임원 기간과 총무 입후보자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할 수 있다.

②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

③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 간 총회기관자인 기독교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④부총회 및 감사초청은 총회가 파한 후 1년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은 목사는 “클린선거 효과가 배가되고 금권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오해 없이 사용되면 개혁주의 교리”

총회 셋째 날 신학부 보고, 총대들 받기로 동의·제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셋째날인 20일 신학부 보고가 있었다.

이날 신학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 관련 건 및 이대위 능동순종이전의 건에 대해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를 말할 때 유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절정”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위탁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라며 “그러나 순종교리를 전개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에만 국한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전 생애에 걸친 전체 순종에서 다뤄야 한다”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라고 했다.

아울러 ‘로마 가톨릭 영세 관련’의 건에 대해 “신약성경은 하나의 세례를 가르친다. 이 원리는 어떤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볼 때 제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신학부는 “아거스틴이 도나투스주의 자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줬던 원리는 이후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영세에 대해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는 타당하다. 그러나 유효하지는 않다. 그 영세가 유효하기 위해선 영세를 받은 자가 개신교회의 일원이 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교단은 오랫동안 아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제99회 총회(2014년)에서 신학부 연구 없이 현장 토론만으로 영세 불인정 결의를 했으므로 이 현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 본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제99회)는 유지하되 이 주제에 대해 제108회기 신학부로 하여금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 본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학부는 ‘반기독교적 사역 단체 관련’의 건을 두고 “교회개혁실천연대, 브릿지 임팩트,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성교육상담센터 숲, 하나님정치신학연구소, 사단법

인 평화나무, 뉴스앤조이. 이상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은 주로 교회와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임, 개혁신학이나 그것을 근간으로 한 보수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대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본 총회는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심준비론에 관한 이대위 연구’의뢰 건에 대해선 ‘신자의 구원의 사정에서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 회심은 그 어떤 방도로도 인간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며 “개혁주의 전통의 회심교리에서 회심준비는 인간의 방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주권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회심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전개하는 회심을 일컬어 ‘회심 준비론’이라 할 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수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총대들은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동의하고 제청했다. 노형구 기자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평가와 전망’ 학술세미나 연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한반도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은 22일 서울캠퍼스 장공기념관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D)과 공동 주최, 한신대 글로벌피스 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의 평가와 전망: 갈등과 진화의 메커니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개회식 △기조세션 △제1세션(발표1: 한·일 관계의 구조변화; 발표2: 한·일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의사결정 구조) △제2세션(발표3: 한·일 관계 어젠다 형성 메커니즘; 발표4: 일본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퍼포먼스)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 방광석 교수(홍익대)는 ‘근대 한·일 관계의 구조 변화’를, 김태주 연구위원(국가안전보장전략연구원)은 ‘한·일 역사 인식과 보수주의’를 발표한다.

방광석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한성민 고려대 교수가, 김태주 연구위원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 이흥천 교수(동국대)는 ‘한·일 관계 어젠다 형성 메커니즘’이라는 제

목의 발표를, 염동호 교수(한신대)는 ‘일본 의사결정과정과 세습 정치엘리트의 퍼포먼스’를 발표한다.

이흥천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이선민 시정자미디어재단 연구원이, 염동호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김윤형 한겨레 기자(국제부장, 전 도쿄 특파원)가 진행한다.

라운드테이블(종합토론)에서 송주명 교수(한신대)는 ‘한·마일 가치동맹’ 외교와 한·일 관계의 비정상적 퇴행을 발표한다. 장지동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나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1Lead by 신한카드

“지옥 벗어나는 길…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것”

강문진 목사, 최근 ‘지옥은 존재하는가’ 주제로 메시지 전해



강문진 목사(진리교회 담임, 한국개혁신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사진)가 최근 한국개혁신주의 설교연구원 홈페이지에 ‘지옥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牧사는 “가독교 역사를 보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서,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만인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라고 했다. 이어 “만인구원론은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은 없다고 주장한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며 “그러나 지옥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지옥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죄 때문이다”며 “죄가 존재하기에 지옥이 존재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려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3:9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론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

니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죄가 있기에 지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제한 속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 요한복음 17:6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했다”며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시편 116:7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라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라고 하였다”며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죄인을 지옥에 넣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문진 목사는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건 악한 일을 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는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그저 그의 영혼이 소멸되고 만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실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며 “악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다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옳고 폐기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도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옥이 없으면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목사는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지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라고 하였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는 말이 나온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옥은 영원히 고통 받는 곳이다. 지옥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영원성에 있다”며 “지옥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옥의 문지방을 넘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운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길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살아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CCC, 국제구호단체와 긴급재난에 대비한 훈련 캠프 개최

‘2차 긴급재난훈련캠프’ GAIN코리아와 진행, 심리 대응 케어·교육응급처치·CPR 등 교육

CCC의 북한관련 사역인 NK사역부와 GAIN Korea가 최근 “2차 긴급재난훈련 캠프를 개최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청주CCC 회관에서 8월 16일부터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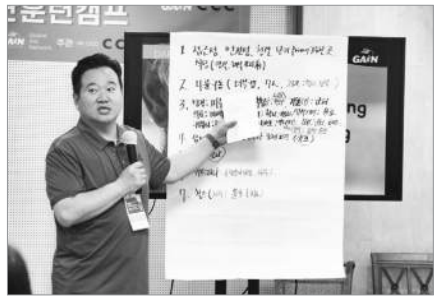
까지 진행된 이번 긴급재난훈련캠프에는 17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구조 활동가 특강, 구조-재난지역의 이해, 조사, 재난 상황 체현, 재난 상황 심리 대응 케어 교육을 비롯해 청주서부소방서 응급구조사

의 응급처치, CPR 교육을 이수했다. CCC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재난 발생 시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희망의 전달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긴급재난훈련캠프

프에 참여한 참가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DART의 팀으로서 재난 현장에 구조의 손길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로 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GAIN Korea는 NKCCC, NK사역부와 함께 긴급구조 봉사단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아시아 지역, 통일 이후 북한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시 훈련된 자원들을 즉각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긴급재난훈련캠프’를 계획해 왔고, 2022년 1차 긴급재난훈련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국제GAIN의 ‘긴급재난대응팀’(DART, Disaster Assistance and Response Team)은 전 세계 재난 지역에 긴급구조 봉사자들을 훈련하고, 파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DART는 재난 발생 시 파견되는 훈련된 기독교 자원봉사자 팀이다. DART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식량 및 의복 분배, 쉼터 제공, 의료 조언 및 외상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구조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전문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만들어 숙련된 국제 자원봉사자팀을 양성하고 있다. 문장호 간사(GAIN Korea)는 “한 손에



참가자들이 긴급재난구조를 위한 실습에 임하고 있다. ©CCC 홈페이지



긴급 상황 시, 필요한 대응 상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CCC 홈페이지

는 사랑과 복음을 들고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삶의 회복(Restoring Life)과 산 소망(Revealing Hope)을 전하는 긴급구조 봉사자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 CCC는 이에 대해 “국제GAIN은 DART를 통해 갑작스레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CC의 NK 사역은 북한 젓염소 보내기 운동과 통일봉사단 활동을 통해 북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이다. 한국CCC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동포들의 영양실조를 최선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1999년부터 북한 젓염소 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또 1995년 5월에는 SM2000을 통해 8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통일봉사단으로 헌신했고, 이때 헌신한 학생들은 북한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으로 그 헌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제 구호단체 GAIN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산 소망과 생명의 자원으로 연결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1990년 구소련의 해체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태동했다. 현재 10개의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52여 개의 필드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GAIN코리아는 희망의 학교, 희망의 멘토링, 생명의 물, 생명의 빵 사업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인도, 이라크, 필리핀, 일본, 네팔,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GAIN코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산 소망을 품게 하여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상진 기자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젊은 세대 교회로 인도할 것”

개혁신주의 정신으로 설립된
예장 합동 소속 ‘수원새빛교회’



수원새빛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에 속한 교회로, 개혁신주의 정신과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 본 교회는 1979년 11월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해 1982년 수원노회에 가입했다. 1985년 수원시 인계동에 성전을 세우고 이듬해 광복절 입당 예배를 드렸다. 2019년 인계동 지역 재개발로 매교동으로 임시 성전을 마련했다가 최근 새 성전을 건축해 입당 예배를 드렸다. 담임목사인 이부호 목사(사진)로부터 교회 이전 관련 이야기, 교회 사역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부호 목사는 “우리 교회는 1979년 11월 설립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44년이 지나면서 교역자는 제가 2대 목사이고 교회를 설립한 1대 목사님은 대령으로 예편하셔서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다. 우리 교회는 인계동에 건축되어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재개발이 되면서 2019년 6월



수원새빛교회는 최근 성전을 신축했다. ©교회 측 제공

매교동에 있는 매교상가에 임시처소를 마련하고 이전해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그는 “매교동 임시처소에서 시간을 보낸지 50개월 만에 인계동 아파트 단지 옆 쪽으로 마련된 부지에 새로운 교회를 짓고 최근 입당 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의 중심 구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나니’(이사야 60:1)’라는 말씀이다. 이에 교회 명칭이 수원새빛교회가 되었다. 교회 이름에 걸맞게 새롭게 빛을 발하여 인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다. 2004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당시 캄보디아는 매공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생각해서 한 가정을 파송했

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불교국가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최근 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의 의식도 바뀌어 가고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 교회마다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서류를 잘 안 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이부호 목사는 “목회 현장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팬데믹 전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 소위 MZ세대들은 우리가 접촉해야 할 대상이지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때 접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전처럼 무작정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만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을 MZ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는 지역 복음화 사명이므로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줄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美노스캐롤라이나 대형교회, 하루 만에 282명 ‘세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를 둔 대형교회가 하루 동안 28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해당 주에 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빌트모어 교회(Biltmore Church)는 지난 17일 플레처(Fletcher) 마을에 있는 한 장소에서 대규모 세례 행사를 열어 279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또한 교회는 이날 아침 예배에서 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트모어 교회의 문화 및 참여 담당 목사인 데빈 고인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신 덕택”이라며 “우리 팀은 수많은

개인적인 대화를 거쳐 함께 일했고, 몇 주 전에는 세례에 대한 주제를 설교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개별적인 상담을 받았다”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움직이실 때 항상 준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고인스는 또한 CP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각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에게 큰 발걸음이지만, 종종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교직원들은 계속해서 각 사람들이 성경적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연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다른 방법들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각 사람이 제자 훈련을 이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들을 인도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빌트모어 교회는 1889년에 설립된 펜힐 침례교회(Fern Hill Baptist Church)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교회는 빌트모어 사유지에 위치해 25명의 교인이 출석했다.

2008년에 브루스 프랭크(Bruce Frank)가 담임목사에 부임하면서 교회는 2010년대에 여러 지교회 캠퍼스를 설립했으

며, 2021년에는 브레버드 커뮤니티 교회(Brevard Community Church)를 회원 캠퍼스로 맞이하여 다시 성장했다.

프랭크 목사는 또한 남침례교회(SBC)의 성직 학대 근절을 위한 태스크 포스(TF) 의장을 역임하며, 교단이 성직 학대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개혁을 주도했다.

프랭크는 지난해 SBC 연차총회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투표로 승인하기 전에 한 연설에서 “문화와 방향을 바꾸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실천 없이는 회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 김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빌트모어 교회가 2023년 9월 17일, 플레처 마을에서 침례 행사를 개최하여 279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트모어 교회

“일터에서 예배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송동호 목사 ©주최 측 제공

‘엔데믹목회 드로잉세미나’ ANC온누리교회서 열려

SEED 선교회와 Only In Love 선교회 주최, ANC온누리교회와 미주복음방송 후원으로 목회자 대상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ANC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NOW Mission 대표 송동호 목사가 초청되어 일산 선교학교 소개 및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송동호 목사는 지금의 선교사의 현실, 팬데믹 이후에 선교사들이 처한 현황을 소개했다. 송 목사는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선교 후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느 선교사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몰리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더이상 선교사가 아니라는 느낌의 고백을 토로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스

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스스로 돕지 않으면 주저앉는다는 위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는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족과 친지의 돈을 끌어와 실패하고 빚쟁이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때 선교사가 (비즈니스를)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망하기 쉽다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송 목사는 “선교계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자비량 선교,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선교사의 후원 약화에 의해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자립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사실 네비게이토나, UBF 등의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립선교를 해와서, 그들이 주목을 받으면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이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지역,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처 넘어간 이야기를 들을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먼저 인식되어야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교다라는 인식을 해야할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의 선교적인 삶,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니 개인적으로 기쁨이 왔다”고 했다.

송동호 목사는 “선교사가 예배적인 삶

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곧 선교라는 개념으로 안보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면서 “세속에서의 성자 운동, 일터에서의 제자화 등의 표현을 통해 BAMer 이란 이름을 쓰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낮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교회가 방향을 잡으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목사는 나우미션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산선교학교를 소개하면서, “홀로 서기위한 삶과 함께 서기 위한 삶 등 두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총체적 선교훈련이다. 선교적 제자도를 위한 훈련이라고 할수 있다”면서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되어 공동체로 들어오고 주께로 인도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어서 OC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21일(목) 미주복음방송 분사 공개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토마스 맹 기자

디딤돌선교회, 3백여 노숙자들에 나눔과 돌봄 전해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가 매년 4차례 실시하고 있는 나눔과 돌봄 축제가 9월 16일 오전 8부터 10시까지 Hurt Park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300명이 넘는 노숙자들과 25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뜻 깊고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디딤돌선교회 이사 이토니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톰 케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후 선교회가 준비한 음식과 옷, 백팩, 신발, 양말, 기프트카드가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루터탄 아웃

리지 파트너십이 봉사활동을 준비했으며 믿음밴엘침례교회가 참여했다.

디딤돌선교회는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에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고 있으며 뷰포드하이웨이에서 히스패닉 사역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숙자 성경공부와 토요일에는 노숙자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눔과 돌봄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는 404-429-9072(송요셉 목사)로 연락하면 된다.

앤더슨 김 기자



디딤돌선교회 나눔과 돌봄 축제에서 찬양하는 사역자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디딤돌선교회 나눔과 돌봄 축제에 참석한 노숙자들. ©주최 측 제공



단체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상담 02-3295-3300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삼준

• 전국 15개 세무서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세무사 송선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사 송선호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고아’ 5만명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식량과 복음 전달을 돕는 한 기독교 단체가 절실히 필요한 잊혀진 집단을 발견했다. 이들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에서 학대나 방치를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슬라브복음협회(SGA, 전 러시아 복음 협회)는 1934년 설립되어 수십 년 동안 소련의 신자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제공해 왔다. 20세기 후반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SGA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다양한 국가를 섬기는 국제 사역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이 성장하면서 사역 프로그램의 숫자도 증가했다. SGA는 복음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2022년 2월 러시아 군대가 침공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전 기간 동안 계속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도왔다.

SGA 운영부 수석 부회장인 에릭 모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SGA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

해 13개국 6천개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교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구호품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SGA가 이들 교회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모크 부회장은 “개인 기부자나 민간 재단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SGA는 교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음식과 복음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지원해 왔다. SGA는 현재 음식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폴란드 교회와 협력하여 폴란드에서 자원 구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식이 트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운송된 후, 공급품은 SGA 네트워크 내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 배포한다.

모크 부회장은 “따라서 이는 폴란드에서 트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음식

과 추가 자원, 교회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의 조합”이라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책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다.

SGA는 지역 교회로부터 받은 재정 보고서 외에도 사역 운영 책임자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모크 부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SGA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1천9백만 명 분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지역 교회는 5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2천2백개 교회, 폴란드에 110개 교회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크 부회장은 구호품을 배포하면서 이 단체와 파트너들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만난 아이들 중 일부는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미혼모 가정에서 살고 있어 집에 혼자 남겨졌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모크 부회장은 SGA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사회적 고아’라고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SGA가 전쟁 내내 계속해서 봉사한 그룹이다. 모크 부회장에 따르면 교회들은 이러한 사회적 고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이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모크 부회장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고아에 대해 “이 아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다”라며 “(사역자들이) 집에 들어가자 그들은 이 아이들의 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3만에서 5만명의 사회적 고아가 살고 있다고 추정했다. 모크에 따르면, 교회 사역자들은 가정들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매주 그들을 섬긴다.

그는 “우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슬라브복음협회는 지난 9월 9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 오리히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다. ©SGA

을 보기 위해 부모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라며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악순환을 계속하기보다는 이러한 가정을 복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모크 부회장에 따르면, 교회는 가정과 함께 ‘완전한 단위’로 일하며 부모가 중독을 극복하도록 돕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집 수리를 돕거나 가져귀를 포함한 필수 물품과 위생 용품을 배달한다.

그러나 모크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우크라이나인의 삶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5백만여명이 유럽으로 탈출했으며,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6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다. 이미경 기자

맥스 루케이도 “스트레스 관리하러 술에 의존했던 때 있어” 고백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최근 발표한 저서를 통해 과거 스트레스를 관리하러 술에 의존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루케이도 목사는 신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God Never Gives Up on You)에서 “사역의 압박이 커짐에 따라 마을 반대편으로 가서 비밀리에 맥주를 샀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강단도 나를 필요로 했다. 출판사는 나를 믿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됐다. 공개적으로는 아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 큰 캔을 사서 자루에 숨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가게는 도시 반대편에 있었다. 나는 차에 앉아 자루에서 캔을 꺼내고, 한 시간 동안 들이켰다. 그날의 가혹한 요구를 피하는 것이 ‘미국의 목사가 미처가는 자신의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날, 주차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맥스? 네가 모든 걸 다 갖췄다면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 ©토마스 넬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왜 주차장에 숨어서 종이 봉지에 숨겨둔 맥주를 홀짝이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내가 그 주차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했다.

이어 “이후 나는 장로들에게 내 위선을 고백했고, 그들은 훌륭한 목사들처럼 행동해 줬다. 날 기도도 달아 줬고, 여러 요구들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 줬다. 나는 교인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고백했고, 이후 같은 유혹에 맞서 싸운 이들과 함께 10여 차례 대화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도 새 이름을 주셨다”고 했다.

앞서 2021년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그는 “그때 불안감을 다루는 힘이 정말 말바

다까지 떨어졌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주 목요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치유를 받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졌다. 그것을 성령님께 돌린다. 나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인한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 그는 “나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약간 슬픔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 루케이도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에 대해 더 큰 연민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루케이도 목사는 “교회는 단순한 복음과 능력의 갱신을 갈망한다. 정치와 논쟁의 측면에서 우리는 약간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돌아가는 새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교회가 된다면,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종종 있다”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면한 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을 극복하셨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했다.

루케이도 목사는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겪는 싸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자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자책하지 말라.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을 것이고, 아플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은 새로운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기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일,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세계부채 41경원 사상최대… 韓 GDP 대비 가계부채 4위”

올 상반기 전 세계 부채 규모 307조 달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분기 연속 336%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부채 규모가 307조 달러(약 40경80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19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도 매체 위온, 마니컨트롤 등 외신들이 국제금융협회(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부채 규모는 10조 달러(약 1경3000조원), 최근 10년 동안에는 100조 달러(약 13경3000조원) 증가했다.

이같은 최근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2분기 연속 336%를 기록했다. 부채 비율은 최근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부채 비율 증가는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둔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지표인

명목 GDP의 증가 속도가 부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부채 비율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이들 선진국은 최근 누적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 나타났다.

신흥시장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았는데, 이는 중국·한국·태국의 영향이 가장 컸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위는 스위스로 126.1%, 2위는 호주 109.9%, 3위는 캐나다 103.1%였다.

최현호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재건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휴 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 경로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이하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백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품 가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 방식, 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여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월은 적용 금리 + 연 3%(최대 연체 이월은 연 12%)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후회 납부하며 금리변동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됨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용(개인신용평점, 재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단의 대출 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이 면제될 경우에 계약면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반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제 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참조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결 2023-6734(2023.08.11~2024.12.31)

우리은행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무더기 이탈표 발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모두 295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고, 기권은 6표, 무효 4표였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바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지만,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진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것과 같은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국 기자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윤 거부 방침

국무총리 해임안, 헌정사상 첫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쟁반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언급되자 “그냥 들어가기라며 항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

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는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현 신귀혜 한은진 기자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여야 이견에 반영 불발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고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 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

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 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권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권은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

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재우 기자

檢,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징역 12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檢 “죄의식 없던 것 아닌지 의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게도 실형과 추징금 수백만원~수억원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일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무작정 부인하는 것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본건을 담당한 검사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측컨대 (김 전 부원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이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사건의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범행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신고자가 아닌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한동안 그 명예를 지고 갈지도 모른다”며 “유 전 본부장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범 간의 불법을 지켜주는 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밝히고 선처받는 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부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희양행

홍준표 시장은 할랄산업 활성화 사업을 당장 폐기하라

이만석 박사
무슬림선교훈련원장



경북 신문의 제보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2028년까지 10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는 할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2028년까지 할랄 인증 업체 수를 5곳에서 50곳으로 10배 늘리고 할랄 식품 수출액도 711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3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한다(경북신문 23.8.18)

홍준표 시장은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지난 번 대현동 모스크 건축문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경청하는 대신 무슬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으로 친이슬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슬람의 미화된 거짓 정보에 속은 탓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뿌리가 같다는 주장이나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내용 중 구약 성경의 내용은 같고 신약부터 달라진다는 주장, 혹은 순 이파는 온건하고 시아파가 과격한데 그 중 실제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시아파 중에서도 0.1%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거짓

주장이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할랄 산업 활성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양쪽의 견해들을 들어보고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에 근거해 입증된 말인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주변의 몇몇 인사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수립했다면 그건 심한 표현 같지만 일종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타기아라는 교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사실과 다른 말 즉 거짓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꾸란2:225)

그렇다면 할랄에 대한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첫째는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슬림들 중 한식적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의 샤리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슬림들의 율법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시간 맞춰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슬림들의 의무라고 해도 모든 무슬림들이 그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정기 기도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하는 하디스가 있으며(AI-Bukhaari,

Azan 29, Husumat 5, Ahkam 52; Muslim, Masjid 252, (651); Muwatta, Salaat Al-Jamaa'ah 3, (1, 129-130); Abu Dawud, Salat 47, (548, 549); Tirmidhi, Salat 162, (217); Nasaa'i, Imamah 49, (2, 107))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차이는 기도회 참석으로 구분한다(Sahih Muslim: Kitab ul Iman: Book 001, Number 0147) 즉 기도회에 불참하면 알라께서는 그를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의 하디스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참석율은 강성 이슬람 국가로 유명한 이란에서도 그리 높지 않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미국 시카고의 로올라 대학과 이란의 테헤란 대학에서 2006년 가을에 공동연구한 것이다. 그림의 표를 살펴보자.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통계는 연령별로 매우 급우 기도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6%로 표시되어 있고 매우 드물게 혹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77%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 인구가 세계적으로 급히 늘어나는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신자로 취급하겠다는 이슬람 제2의 경전 하디스의 구절들이 많

연령	횟수	1주일 1회	한달에 1회	특별행사 만 참석	때 때	매우 드물게, 전혀 불참	비 고
13-25세	5	5	5	5	85		
26-35세	4	5	5	5	86		
36-45세	6	16	9	70			
46-65세	14	20	11	56			
65세 이상	5	24	4	67			
평 균	6	11	6	77			

출처: Theran Survey 2003,N=391. (이만석, 할랄 인증의 불편한 진실, 4HIM, 2019, p74)

고 또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는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말하는 무함마드의 언급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77%의 성인 무슬림들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본 통계의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할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다롭게 단속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슬림 숫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니까 할랄 식자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먹구구식 추측일 뿐 근거가 없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꾸란에는 술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 숭배와 절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꾸란5:90)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알라를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말겠느냐(꾸란5:91)

이제는 일반상식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무슬림들은 술을 금하고 있다. 즉 술은 할랄(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람(금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술을 마셨고 그의 삼촌 함자도 술주정뱅이었다고 한다(Sahih Muslim Book 23, Number4879) 후에 무함마드는 술취한 삼촌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음주를 금하는 계시가 내려왔다는 추측이 있다.

그런데 이태원 밤거리를 다녀보면 술취해서 비틀거리는 무슬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란에는 '아락씨기'라는 전통주가 있다. 알콜농도가 80~90% 정도나 되는 독주다. 이것을 이슬람혁명(1979) 이후에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옹은 아락씨기 공장을 폐쇄시키고 판매와 음주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백성들이 즐겨먹던 전통주를 금한다고 백성들이 안 먹을까? 물론 상점에서 팔지 않으니가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조치 이후로 점점마다 술공장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그 '아락씨기'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거 만드는 기계를 어디서 파느냐고 물으니 "의료기 상화에 가서 몇 가지 사다가 30분이면 조립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란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도 에페스 펄스나 맥주가 잘 팔린다고 한다. 예니 라크라는 술도 잘 팔리고 있다. 예니 라크는 알코올 농도 45~50%정도 되는 독주인데 사자의 젖으로 불리며 튀르키예소주로도 알려져 있다. 사이프러스 북부 지역에서는 매년 12월 둘째 토요일 라크 축제가 열린다. 튀르키예의 크레테 지역에서는 조그만 상점에서도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서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튀르키예의 아니톨루 에페스라는 양조회사는 유럽에서 7번째로 큰 술공장이며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의 술공장이라고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Efes.Beverage_Group)

기가 막히는 것은 할랄 인증 발급처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네시아의 MUI 그리고 싱가포르의 MUIS,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음식에 포함된 알콜은 말레이시아의 JAKIM에서는 0.01%까지 허용한다고 한

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MUI에서는 1%까지 허용하는가 하면 싱가포르의 MUIS에서는 0.5%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세 나라는 이슬람의 샤피이(SHAFII)학파로 분류된다. 샤피이 학파의 음식에 포함된 알콜에 대한 규정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어떤 이가 합성 알코올이 사용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의 식품에 대한 샤피이 학파의 규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달아 놓았다. 알코올이 화학적 합성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즉 발효된 알코올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술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취하게 하는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슬람 율법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약품화합물에 포함된 술은 묵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의료용으로 필요할 때이며 또 하나는 소비 시장에서 그것이 술이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을 경우다. 알코올이 약으로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취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재료들을 녹여서 용화(SOLVENT)시키는 목적의 보조제로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로 오늘날 합성음식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합성 식품이 생필품은 아니기에 필요에 의한 예외에 호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히 용화제로서의 에틸 알콜은 합성 식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염료, 페인트, 잉크, 등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런 것들을 금하면 사람들의 보편적 고통이 예상되므로 이런 것들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두 번째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코올의 양이 매우 적은 분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에틸알코올이 용해제로 사용되었거나 소량으로 사용된 음식의 소비는 허용된다. 용해제로 에틸 이외의 다른 알코올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굳이 예외 규정을 특별히 필요도 없이 소량이라면 허용된다.

샤피이 학파의 공식 홈페이지에 할랄 규정에 대한 3가지 파트와(종교 칙령)가 소개되어 있는데 소개해 보면 이렇다.

1. 포도주나 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청량음료의 알코올 농도 1% 이하의 할랄이다.
2. 과일류, 콩류, 곡류, 주스류처럼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음식이나 음료는 할랄이다.
3. 음식이나 음료에 맛이나 색깔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은 포도주와 동일 과정으로 제조되지 않았다면 최종 제품이 취하게 하거나 알코올 농도 0.5%를 넘지 않는다면 할랄이다. 이것은 정부가 운용하는 할랄 분석센터의 기준이고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는 JAKIM에서는 알코올 농도 0.01%까지만 허용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공식적으로 샤피이 학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알코올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학파의 공식 입장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이슬람에서 할랄과 하람 규정은 무슬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슬람 율법의 규정이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통제하고 압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 할랄과 하람규정이다. 이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장, 화장품, 심지어는 사람도 할랄과 하람으로 분류한다.

사실 할랄과 하람규정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꾸란에서 금하는 행동이다. 너희는 이것이 할랄(허용된 것)이다. 이

것이 하람(금지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꾸란16:116)

그러므로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혹은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에서는 할랄 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맨 종이에 도장 하나만 찍어 주면 수백불 혹은 수천불 씩 공짜 수입이 생기면서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변두리 이슬람국가에서 종교 사기행위를 강행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이슬람율법의 노예가 된다.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이다.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 즉 이슬람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꾸란은 말하고 있다(꾸란49:14)

할랄 인증서를 받아오면 인증기관에서 정기 방문 혹은 수시 방문하여 할랄 기준에 맞춰서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감시한다. 이들의 출장비, 항공권 구입비, 교통비, 호텔비, 통신편 등 일체를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방문했을 때 삼겹살을 먹은 직원 이 할랄제품을 만든다든지 소주나 막걸리를 마신 사람이 할랄 제품을 만들다가 발각된다면 할랄 인증은 취소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슬람의 율법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보는 데서 만이라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율법 통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하접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비무슬림과 연관한다고 자기 딸을 죽이기도 한다. 소위 명예살인이다. 해마다 5천명 가량의 무슬림들이 명예살인이라는 명분으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살해당한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의 피해자들이다.

싸프크 디마야 알 쿠바르 할랄(safk dimaa al kufar halal: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이다)이것은 아랍의 속담이다. 모든 아랍인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AYA RIKHTANE KHUNE KAFARAN HALLAL AST?(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이냐?)고 물었더니 여러 명의 이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ALBATE JEYEZE HAM MIDE)(물론이지요, 상까지 주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란에서는 남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하람(금지된 것)인데 이를 할랄(합법적인 수입)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는 그 돈의 1/5을 이슬람 성직자에게 바치면 된다. 이것을 흠스(Khoms1/5)라고 한다. (haji aqa lotfan pule mara hallal kon: 선생님 제 돈을 할랄로 만들어 주세요) 이는 이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할랄의 개념을 바로 알고 속지 말아야 한다.

돈 몇 톨 더 벌자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종교사기 행위에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아리석은 일을 해도 안 된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또한 식품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슬람율법의 노예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홍준표 대구 시장은 대구시에 할랄 인증 받은 회사를 10배로 늘리겠다는 생각은 혹시 농담이나 잠꼬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당장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5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랄 인증을 돕겠다는 계획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도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슬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교회가 제정할 유일한 규례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뮤니티교회

사도행전 15:22~35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15:28)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첫 예루살렘공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결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고 주장했으나 공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와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규례는 신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자신들을 대리해서 동일한 권위를 갖고 새 규례를 설명하고 시행을 독려하도록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조치들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도 즉, 이미 구원 얻은 신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어 안정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전파가 한층 왕성해졌습니다.

공회에서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자고 했는데 지금 사절단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불신자이므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상 제물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상 신전의 추악하게 타락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방인 교인더러 흑사라도 미련이 남아서 비밀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근처에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기는 거의 다 우상 제물이었으나 교회가 그들에게 시중에 파는 고기까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유다와 실라가 규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한다. 이 넷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할례 외에 다른 종교적인 규칙들로 이방인들을 추가로 속박하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넷은 너무나 요긴하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그럴수록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 네 조치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의 권능을 높이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넷은 구원의 조건이거나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행하면 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면” -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고 그대로 지키면 - “잘되고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행과 책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 교인이 어쩌다 실수하여 한두 번 이 네 규례를 어기거나 나아가 할례를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 간의 화목과 일치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 입교한 이방인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관습과 규칙에 익숙한 오래된 유대인 신자라는 뜻입니다.

비유컨대 한국교회에 외국인인 출석한다고 해서 한국식 문화와 관습을 강요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방신자의 구원은 물론 신앙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들이 한국식 문화와 관습에 스스로 익숙해진다면 기존의 한국인 신자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국교회에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아주 좋을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는 너무 많은 규례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각 교인의 개인적인 신앙유익에 도움이 되면서 성도간의 교제에 꼭 요긴한 최소한의 것들만 정하면 됩니다. 그마저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신자의 재량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 규례를 선정하는 기준도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의 거룩한 성장과 성도 간의 일치 화합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진작되는 규

례면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보다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성이 높아지고, 교회의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하고, 각 개별 성도의 영적 성장과는 무관하게 교회에만 복종하게 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는 외면하는 등의 규례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와 목사를 위한 규정들은 제정해서도 안 되고 제정되어도 신자가 순종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규칙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 단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모임, 교제, 봉사 등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 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는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규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터널을 빠져 나와



서병채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멜빈대학교는 이제 터널을 빠져 나온 듯하다.

2년 전에 개교식을 하고는 줄곧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개교식 이전에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만 건축하는 데에 거의 1년이 걸렸다.

그래서 2021년 8월 14일에 개교식을 하였다. 개교식을 하고 나니 어떤 이는 나에게 앞으로 ‘장미빛 길(a rosy road)’만 남았다’고 얘기했다. 개교식 때에는 케냐 교육부에서도 나와서 축하도 하고 많은 사람이 축하도 하면서 먹고 즐겼다. 나 자신도 건축하고 개교식까지 했으니 내 개인적으로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멜빈 목사님게도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동안 20년간 나를 도와주어 대학교까지 세워서 개교했다고 마음 속으로 보고와 함께 도와주신 것에 대해 푸파시(상쇄) 했다고 혼자 생각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상상도 못하고 기대만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개교식 후 이삼일이 지나자 현

실이 다가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운 터널로 막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다.

우선 개교는 했지만 4년제 신입생 모집을 바로 허락 안 해 준다는 것이다. 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허락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3개월 코스 두 번, 1년 코스 한 번을 거친 다음 4년의 BA코스가 이번 봄에 허락이 된 것이다. 그러니 개교식은 하고 지난 2년간은 정말 죽을 맛이였다.

3개월, 6개월, 1년짜리 코스를 하니 학생들이 학교를 우습게 봐서 그런지 등록금을 전혀 안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직원 봉급, 교수 봉급, 심지어는 가족사임대료까지 한국에서 다 보내와야 하니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다. 개교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정말 현실적이었다. 매달 세 가지를 외부의 도움으로 주어야 하니. 그래서 결국은 임대 기숙사를 없애면서 한 가지 비용을 줄였다. 기숙사를 없애니 30여 명 들어있던 학생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 가까운 데에서 다니는 학생들 10여 명만 남게 되었다.

학교 자체로서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현실적인 숙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어 못 내는가? 또는 안 내는가? 못 내는가? 안 내는

가? 현자인 교수들은 “없어서 못 낸다”고들 얘기했다. 그러면 등록금을 학교 측에서 100% 대야 하는가? 완전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위까지 주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이 있었다.

나는 인도 나가랜드에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해 본 경험이 이미 조금은 있어서, 학생들이 못 내기도 하지만 ‘안 낸다’는 것을 그때에 인지한 바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 멜빈대학교에서는 이제부터는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은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니 본인들의 봉급도 제때에 못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교수들 자체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도록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학생들도 “우리가 등록금을 안 내면 우리를 가르치는 저 교수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난 2년간 거치면서 이제는 학생들도 확실히 인지하게 되어서 등록금도 분납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즉 두 번째 학기가 이번 9월초에 시작되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특히 등록금을 다 내고 또 낸다는 학생들만 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사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어두운 다음 터널이 또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여 첫 번째 터널은 나와서 감사한 생각이 든 것이었다.

여호와 닛시



홍충수 목사
나성한미교회

출애굽기 17:8~16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상대로 한 ‘첫 전쟁’이었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

신명기 25:17-18절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 가는 동안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탄의 공격대상은 믿음의 행렬에서 떨어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 믿음의 확산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구경꾼처럼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꼭대기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여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멈추어지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됩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두 명이 그를 수행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역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면 팔이 내려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기도의 동역자들의 협력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닛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이해할 수 없고 궁금증이 유발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다. 전 117절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줄을 깨달았도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되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고 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알고자 했으나 결국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전도서 앞부분의 흐름이다.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열매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공문번역 개정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열매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저자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미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보았다.”

그렇다. 전도서를 11장까지 읽어보면 ‘이게 성경의 내용이 맞나?’라는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다. 헛되다는 말로 전도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 허무함밖에 맞볼 수 없는 내용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



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 11:9절이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하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의미이다. 전도서를 결론 짓는 주제 구절이 12:1-2절에 등장한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전 11:9절과는 대조되는 내용이 전 12:1-2절이다. 보통은 조건문이 먼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는 앞뒤가 도치되어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렇다.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라고 하는 앞의 긴 내용에 있지 않고, 뒤에 등장하는 짧은 조건문에 있음을 알고 읽어야 한다.

전도서의 주제 구절은 전 12:13절이다. “일의 결

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아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다란 말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와 공허와 갈증과 갈증과 고통과 절망뿐임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공허와 갈증 속에 살고 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에 굶주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다. ‘이 사람은 참 사람이겠지!’라 생각하고 다섯 명의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연가꾸 바람받은 외롭고 상처 많은 여인,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로부터도 참사랑을 맛보지 못한 불쌍한 그 여인처럼, 오늘 많은 이들이 고갈된 사랑의 갈증 속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허무와 갈증을 경험하고 있음을 본다. 이유가 뭘까?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과는 대화나 교제없이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Nominal Christian)이 적지 않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뿐 참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교인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고는 하나 그분과의 교제나 경험이 전혀 없이 죽은 종교인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아픔이 어머니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집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형과 부친을 숙이고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와 교제가 경험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다.

이런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시길 바라고 계신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양인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나부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체험하고 그분과의 보다 깊은 교제와 은혜 속에 들어가길 간절히 고대한다.

社 說

‘세습방지법’, 소모적 갈등 끝날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통합 총회) 제108회 총회장에 선출된 김의식 목사가 교단 내에서 갈등의 불씨가 돼 온 ‘세습방지법’에 대해 “이제 갈등과 분열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으로 인해 교단의 역량이 소모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인데 ‘세습방지법’의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김 총회장은 지난 19일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통합 총회 첫날 회무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습방지법’과 총회 장소 선정과 관련해 그간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세습방지법’과 관련,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사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 제28조 6항을 언급하며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한국의 수백 개 교단 가운데 가장, 가장, 통합에만 있는 법”이라며 “그 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통합교단은 내부의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와 권한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그 결정을) 인준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장로교 법이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김 총회장의 이런 지적은 이 문제로 교단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한 걸 우회적으로 지적한 말로 들린다. 그러나 현 총회장이 총회 결의로 정한 헌법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위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조항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리고 노회 수의를 거쳐 그 이듬해인 2014년에 헌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 명성교회에서 목회세습이 이뤄졌다. 당회가 담임인 김삼환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한 건데 교단 안팎에서 헌법을 어겼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일로 인해 교단은 꽤 오랫동안 숙암이를 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가 파행을 빚고, 법적 공방이 길게 이어지자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는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터주는 수습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총회로선 명분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셈이다. 이미 었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담을 수 없지 않냐는 논리와 정서에 총대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인데 총회가 그 부담을 몽땅 떠안은 꼴이 됐다.

세습에 반대하는 노회들의 현의가 총회 때마다 줄을 잇자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선 이 문제를 더는 재론하지 않기로 아예 못 바꿨다. 그런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였던 문제가 임원회가 총회 장소를 하필 명성교회로 정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임원회로선 총회 기간 중 1만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영적 대각성기 도회를 가지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완비한 명성교회가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겠지만 굳이 ‘세습방지법’ 논란을 촉발한 교회를 선택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수도권의 몇몇 대형교회들은 이런 문제를 우려해 총회 개최 직전까지 반대 의사를 임원회 측에 전달했다. 새문안·소망·주안장로교회 등은 총회 장소가 없으면 대신 예배당을 내어 주겠다는 뜻을 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성교회 총회 개최 및 부자 세습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장신대에서 개최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이런 교단 안팎의 불협화음에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을 사람이 김의식 총회장이다. 그는 총회 개최 설교에서 “지난 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과 협박을 들었는지, 8kg이 빠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비분질적 문제로 다투고 싸웠으니, 이번이야말로 하나 된 힘으로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세습방지법’은 통과 당시 “통합교단답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난 10년 동안 무거운 짐이 교단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떤 결정이든 총의를 모아 결의되면 따르는 게 정토고 원칙이다. 그러나 통합 측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을 내린 게 화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결의든 그것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교회의 권한인 목사 청빙에 총회가 개입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김 총회장의 말대로 이제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때가 아니겠는가.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작년 사망자 37만2939명 ‘역대 최대’… 코로나·고령화 영향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발표
사망 원인 1위는 ‘암’…심장질환·코로나 뒤이어

지난해 사망자가 37만명을 넘어하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최근 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후, 2021년 31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08.7명(17.6%) 증가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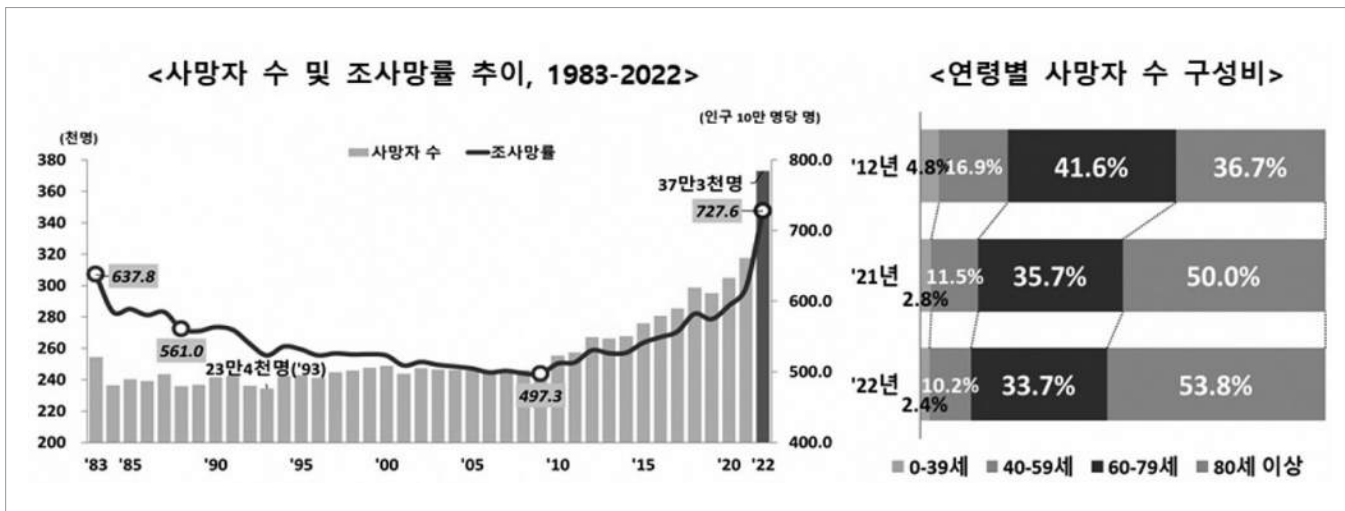
이래 가장 크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22명으로 전년보다 152명 많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노인성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의 53.8%로 절반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8%포인트(p) 늘었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17.0%p 증가했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 수는 20만 493명으로 전년 대비 4만1754명(26.3%) 늘었다.

70대와 60대 사망자 수는 각각 7만6621명, 4만8998명으로 7802명(11.3%), 4541명(10.2%) 증가했다. 50대는 928명(3.7%)



©통계청 제공

늘어난 2만6341명, 40대는 317명(2.8%) 증가한 1만1539명으로 집계됐다.

30대와 20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각각 114명(-2.5%) 감소한 4427명, 21명(0.8%) 줄어든 2757명으로 나타났다. 10대는 796명으로 23명(3.0%) 늘었고,

1~9세 사망자 수는 384명으로 전년보다 97명(33.8%) 늘어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0살도 전년보다 61명(-9.7%) 줄어든 565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체의 22.4%를 차지해 가장 컸다. 그

다음 심장질환(9.0%), 코로나19(8.4%), 폐렴(7.2%), 뇌혈관 질환(6.8%), 고의적 자해(3.5%), 알츠하이머병(3.1%), 당뇨병(3.0%), 고혈압성 질환(2.1%), 간질환(2.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7.4%를 차지한다.

3대 사인인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는 전체의 39.8%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전년에 사인 12위였던 것에서 3위로 오르면서 10대 사인에 처음 포함됐다. 암과 심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인이고, 고혈압성 질환도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폐렴,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은 10년 전과 비교해 순위가 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고, 4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인은 코로나19(522.8%), 알츠하이머병(45.6%), 당뇨병(24.9%), 고혈압성 질환(24.2%), 폐렴(17.3%), 뇌혈관 질환(12.6%)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호흡기 결핵(-7.5%), 운수사고(-4.1%), 고의적 자해(-3.2%) 등이었다.

서다은 기자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600→8600대 확충… 25일부터 요금 인하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대수를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린다. 이용 요금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장비가 설치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차량을 증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 확충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인 나비콜, 국민캡외에 ‘티머니GO’의 온다택시 7000대를 추가로 참여시켜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기존 1600대에서 총 8600대로 확대한다.

바우처택시의 이용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5km 미만은 2000원, 9~10km는 3000원, 19~20km는 5000원인 요금을 각 1500



원, 2900원, 3600원으로 인하한다. 이용 횟수도 ‘하루 4회, 월 40회(1회 3만원 한도)’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활용동의 등만 거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택시 회사에 직접 전화해야 했던 호출 방식도 장애인콜택시 가입자에 한해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 접속해 차량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복지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화 호출 체계가 유지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요금 인하에 나서고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앱은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인센티브도 인상한다. 기존 봉사수당 500원을 2000원으로 올리고, 단거리 봉사수당도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소 수수료도 건당 2000원으로 적용한다.

시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치해 전체적인 이용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택사업계에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아이 젖 오래 물린 여성, ‘폐경’ 늦게 온다”

모유 수유, 생리 기간 연장에도 영향
“내인성 에스트로겐에 더 오래 노출”

모유를 오래 먹이면 폐경이 시작되는 나이가 늦춰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모유 수유는 여성의 총 생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21일 한국식품거꾸리네이션포럼(KOF 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박주현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폐경 여성 총 4318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가 폐경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폐경 연령은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87.0세, 평균 자연 폐경 나이가 49.9세임을 고려하면 폐경 후 인생의 3분의1 이상을 살게 된다.

이번 연구 대상 폐경 여성의 평균 나이는 63.8세였다. 평균 초경 나이는 14.9세, 평균 초산 나이는 24.1세, 평균 임신 횟수는 4.3회, 평균 모유 수유 기간은 34.7개월이었다.

모유 수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여성이 전체의 14.0%,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5.7%,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6.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은 9.8%, 18개월 이상은 64.2%였다. 60대 폐경 여성은 5명 중 3명꼴로 자녀에게 모유를 18개월 이상 먹인 셈이다.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던 여성은 폐경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유 수유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5.3세, 평균 폐경 나이는 50.1세였다. 반면 모유 수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2세였다.

모유 수유 기간이 늘어나면 총 생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도 보였다.

연구팀은 “모유 수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 나이가 늦춰지고 생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겐(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전체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모유 수유가 여성의 폐경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폐경 시점이 늦춰져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한 자질 대사 변화로 심혈관 질환 위험과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또 50대 전후 남성에서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50세 이후 여성에선 발병률이 이전보다 더 높았다는 아랍계 미국인 대상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다만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되면 여성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루리 기자

조국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1121호
연락처 : 070-7799-6335 사무총장 조근식
후원계좌 : 농협 351-0889-0234-13(파독근로자복지재단)
국민 여러분의 후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정 : 2023년 10월 2일(월)~7일(토)

독일 근로자 파견 60주년 기념

독일 거주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초청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의 차관이 절실했던 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독일에 근로자(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견 근로자들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오게 됩니다.

그때 받아 온 차관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날 조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1,000m 깊이 탄광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참으며 석탄 채굴로 젊은 청춘을 희생하였고, 간호사들은 독일의 병원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감내하셨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팔손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독일에 살아남은 파독근로자 중에는 고국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아직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을 초청하여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초청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고문
강우영 구본철 김시악 김경서 이상훈 김호일 박동호 박현제 박희도 배인식
백 일 성준경 송준환 송현순 신현상 정재호 이건호 유 현 윤 윤 윤명원
이규택 이병수 이병화 이창호 이현환 전용만 조금세 차오성 한선식

자문위원
강군열 강석정 권영철 김근구 김일권 김일주 김태연 김형철 도태우 박성원
박선길 박찬성 박천진 신성환 윤재용 이재민 이희철 임요한 임종우 조대한
조원룡 지대홍 최경구 하형규 한규성 한요한

공동위원장
강도용 강영근 경철수 김중대 김태진 류승남
배은희 손병덕 송재영 신동훈 이동수 이두우
이종민 이진호 지광선 최명진 황기식

추진위원
가윤성 권대선 권효정 김길수 김다혜 김병규 김성진 김수현 김영길 김영달 김용현 김원하 김은진 김인희 김정남 김철호
노요한 류두환 묵돈균 민영생 박경만 박노아 박윤성 박종호 박철성 박평서 박학기 방현강 배재경 백태현 성현모 송용팔
안성원 안종길 양국용 양유식 엄동우 오기복 오미라 왕영근 우희삼 유관모 유교숙 윤상근 윤치환 이 훈 이귀영 이서규
이덕주 이영학 이육희 이원중 이종석 이종현 이창호 이한승 정래민 정순일 정신의 정주문 전지현 정봉호 정우영 정지영
정창욱 조규원 조승일 조양진 진유신 최승원 최영오 최영호 최진희 최춘식 최태수 표세철 하용근 한정윤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융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트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 330평
-임대료 :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3. 6.26.
○ 청구인 : 천영철
○ 공고기간 : 2023. 9. 22. ~ 2023. 11. 22.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9. 22.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3. 6. 22.
○ 청구인 : 1.이강희 2.이강근
○ 공고기간 : 2023. 9. 22. ~ 2023. 11. 22.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최희진

2023. 9. 22.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9. 22. ~ 2023. 11. 22.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9. 22.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3조기1771 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4.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3. 6.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9. 22. ~ 2023. 11. 22.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9. 23.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급 기도원, 연수원, 수양관 매

강원도 평창, 총 3500평
최고의 시설과 조건
사유지 막창 끝자락
계곡, 등산로 독점
전용 진입 도로 300m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조망

☎ 010-6659-2999

목사 ·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및 통신신학모집

이사장 양정섭 목사

본원은 57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
협의회에 소속된 교단의 인증된 신학연구원입니다.
본원은 정통칼빈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정통보수신학적 신학연구원입니다.
본 총회신학과 연구원 졸업생은 본 교단에서 고시를 거쳐 총회 산하 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부 과정		
학부	학 과	학 제
신 학 부	신학과	4년
	목회학과	4년
	여목회학과	4년

연구원 과정		
학부	학 과	학 제
연 구 부	신학연구과 (Th.M)	3년
	목회연구과 (M.Div)	3년

* 통신신학은 학부 8학기, 연구원 6학기입니다.
(직장관계나 지방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의 위하여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타신학교 출신도 면접을 통하여 안수받을 수 있음. (여목제도 있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총회신학·신학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8길 31 구로우성아파트상가 2층 (1호선 인천행 구일역앞)
대표전화 (02) 869-0166, 010-9825-2488

성경이 그림처럼 그려진다 국내 최초 성경을 현실처럼 재현한다

정대수 목사의 심령치유 대부흥 성회



주강사 정대수 목사
시흥 사랑의 교회 당회장



강사 박순양 목사
주 예수 사랑교회

* 국내최초 정신분열 원인 분석에 대해 박사
학위취득 (개신 대학원 대학교)

* 대학로 에서 연극배우로 활동 (13년)
서울 예술 대학교 연구과 졸업
* 부흥회 경험 30년 (국내/대형 기도원 집회인도)

일시_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집회
장소_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사랑의 교회 (010-6325-3916)
오시는길_전철 서해선 신현역에서 하차
버스 61번 시흥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65)

로마서 5장 20절

20. The law was added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The law was added : 율법이 가입한 것은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But : 그러나
·where sin increased : 죄가 더한 곳에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 은혜가 넘쳤나니

▶중요한 단어, 속어

add 더하다.첨가하다.
trespass 죄침입하다, 끼어들다.방해하다.궤방하다, (남의 호의에) 편승하다, 침입.패누
increase 늘다.증가하다.
all the more 더욱더.훨씬더

율법이 생긴 것은 세상에 얼마나 범죄가 많은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세상에 죄가 많아졌다. 그러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한다.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 예를들면, 유대인들은 출생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수 5:3-8).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으셨다. 또 삼손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성별의 물을 뿌려 스스로를 성결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되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율법은 경고하고 있었다(민 19:13-19).

그러나 삼손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어느 경륜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은혜는 넘치고 있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세대에는 행위가 요구되고, 어떤 세대에는 믿음이 요구되며, 또 어떤 경륜기에는 믿

음과 행위가 다같이 요구되는 등 세대마다 구원 계획의 틀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만큼은 어느 경륜 세대대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베풀어진다.

갈라디아서 3:19-25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증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나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사될 믿음의 때까지 감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夢學)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19 What, then, was the purpose of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The law was put into effect through angels by a mediator. 20 A mediator, however, does not represent just one party; but God is one. 21 Is the law, therefore, opposed to the promises of God? Absolute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impart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22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23 Before this faith came, we were held prisoners by the law, locked up until faith should be revealed. 24 So the law was put in charge to lead us 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25 Now that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aw.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는 율법은 더하면 더할수록 죄를 더 깨닫게 되므로 죄가 더 증가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 즉 용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석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1절

21.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 이는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so also grace might reign : 은혜도 또한~~왕노릇하여
·through righteousness : 의로 말미암아
·to bring eternal life :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나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 속어

so that 그 결과,그래서
just as A~, so also B~ : A가 ~인 것과 같이, 그렇게 또한 B도 ~이다.
bring 가져 오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한다. 즉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의가 전가되었으되, 그것이 사실상 완성되는 것은 장래의 일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

스도의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장래의 일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다.

현재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영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장차 언젠간 우리는 그 분의 본성을 “실제로” 갖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그 분의 삶과 뼈를 실제로 갖게 될 것이요, 그 후로는 그 분과 일치된 몸으로 영원토록 죄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7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14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요한계시록 22:19

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9 And if anyone takes words away from this book of prophecy, God will take away from him his share in the tree of life and in the holy city, which are described in this book.

▶해석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나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인애 한방칼럼

감기예방과 한약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 특히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진다.

“열집 아이가 작년에 한약을 먹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겨울을 잘 보냈다고 해서요. 감기예방약 좀 지으러 왔어요.” “독감이 유행할 거라는데 감기를 예방하는 약 좀 지어주세요.” “우리아이가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린다는데 기관지를 보하는 약을 지어 먹여야지요.”

서양의학에서는 감기는 감기바이러스가 기관지의 윗부분, 즉 상기도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열, 두통, 인후통, 관절통, 기침 등의 증상은 이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없고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찬 기운, 바람기운, 즉 풍한(風寒)이라는 외부 환경의 인자가 체내에 침범하였을 때, 신체의 방어기전인 면역에 대항하는 과정을 감기라고 이해하는데, 이는 외부의 자연환경의 변화가 신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때, 우리의 면역기능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고에 따라 감기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면역기능, 나아가서 면역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주는 신체기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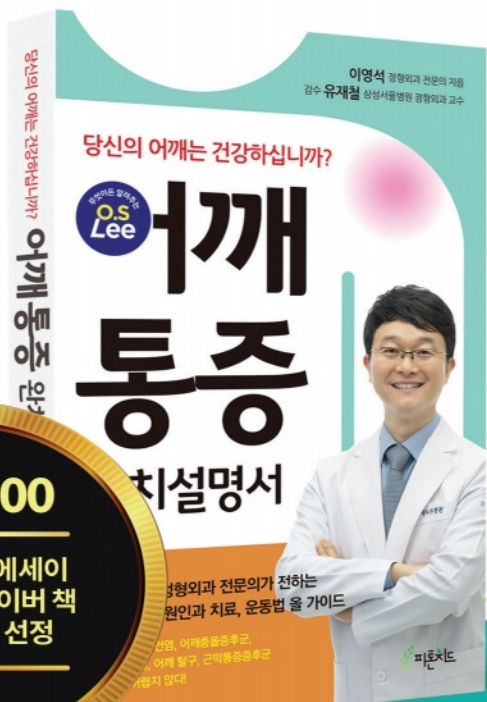
개인의 면역기능은 체내의 생리요소 중에서 기(氣)가 주로 담당한다. 결국 기(氣)의 능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氣)의 많고 적음이 주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氣)의 활동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협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기(氣)의 기능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氣)를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과 기(氣)가 신체의 구석구석에 고루 분포하여 신체기능을 전체적으로 균형잡히게 할 수 있는 순환의 여하, 그리고 기(氣)소모의 적당여부 등이 기(氣)의 활동이 활발하여 신체의 면역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감기의 예방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氣)의 생산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음식의 섭취와 소화 흡수능력과 면역의 최전방인 피부를 기능적으로 관장하며 기(氣)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기(氣)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를 비롯한 호흡기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과 육부를 비롯한 전신기능을 원활하게 하면 기(氣)가 중심이 되어 발휘하는 면역기능도 왕성하여 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걸릴 염려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과로를 피하면서,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氣)가 부족하면 기(氣)를 보충하고 기(氣)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치료하여 기(氣)의 활동이 활발하도록 도와준다면 감기예방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제자가 제자를 만듭니다

졸업을 바라보는 두 문화의 시각이 사
못 다릅니다. 한국에선 졸업(卒業)이라는
단어는 마칠 줄에 업 업이라는 말을 씁니
다. 그러니까 업(일)을 다 마쳤다는 말이
지요. 끝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마쳤다는 말보다는 시작한다는 말입니
다.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개념이지요. 그
렇게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Walking을 하면서 축
하해줍니다. 참 인상 깊은 장면이지요. 그
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을 스승의 입장에

서 보면 제자들인 셈입니다. 제자들이 세
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자랑스럽고 흐
뭇하게 바라보는 스승들이 눈에 선합니
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만들어질
까요? 물론 신앙생활에는 졸업은 없습니
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개인
의 삶을 끝내거나 우주적 종말이 임할 때
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
라를 확장하며 제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제
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

자는 예배 시간에 똑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달콤한 설교 듣는다고 되
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은 받
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받은 감동을 삶
으로 옮겨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
습니다.
우리 공동체(그룹)안에 제자의 삶을 사
는 한 사람의 제자가 있을 때 훨씬 더 효
과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외
과의사가 수술실 실습이 없이 교실의 지
적 배움만으로 능숙한 수술을 할 수 없
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스승이나 선배의 도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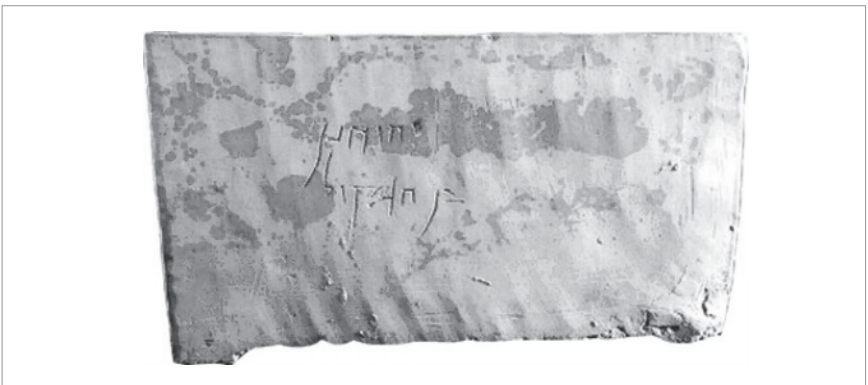
한 땀 한 땀 자르고, 꿰고, 꿰매는 연습
을 반복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경
험해 보아야 비로소 수술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는 우
리 곁에 진짜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냐면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제
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없으면 헛된 것입
니다.
제 성장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에 누군가가 그 은혜의 길

을,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
들이 곁에 있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
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
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후배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자를 만
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실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 예배의 현장 속에
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
고 가르쳐 주어야 할 제자가 있어야 합니

다.
이번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
이 접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가슴 쓰린 도
전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격
려 그룹, 제자그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레
야 우리 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을 같은 제자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보십
시다. 세상은 그를 바보로 여길지도 모릅
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유작하게 가는 제
자, 그가 제자를 만듭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지순례

십자가 사형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요한 벤 하그콜의 뼈가 담긴 석관.



요한 벤 하그콜의 뼈가 담긴 석관.

십자가 사형은 로마 시대에 반역자
· 흉악범·전쟁 포로들을 주로 처형시켰
던 제도였다. 십자가 사형에 대한 기록
은 신약 성경과 그 외의 역사적인 문헌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세푸스
(Josephus Flavius)에 따르면, 하스모니
안 시대에 알렉산더 안네우스(103-76
BC)는 감람산에서 약 800명의 바리새인
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로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십
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그러
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예는 일찍
이 없었다.
그러나 1968년 무더운 여름, 예루살렘
옛 성(Old Jeruslame)에서 북쪽 그리 멀
지 않은 유대인 동네인 기브앗 하미브타
르(Giv'at HaMivtar)에서 1세기 당시의
무덤과 매우 가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
다. 발굴된 무덤은 주후 1세기의 전형적
인 유대인 가족 무덤(Kokhim tomb)으

로, 무덤에서 몇 개의 석관(Ossuary)이
발견되었다. 중요한 것은 발견된 석관에
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뼈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 사형에 대
한 고고학적인 유일한 증거이다.
석관(Ossuary)에는 죽은 자의 이름
이 '요한 벤 하그콜(Yohanan Ben
Hagkol)'이라고 적혀 있다. 요한은
24-28세의 젊은이로, 십자가 처형을 받
게 된 죄목은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십
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다. 석
관에서 나온 요한 벤 하그콜의 오른팔
뒤꿈치 뼈에 큰 쇠못이 박힌 것이 그 확실한 증
거이다.
요한 벤 하그콜은 1세기 팔레스틴
에서 살았던 평범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무덤과 석관에서 발견된
증거로 보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채 숨이 끊어졌으며 그의 가족에 의해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가족 무덤
에 안장된 것을 알 수 있다.

◆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
로를 수학
전)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천로역정

요단 골짜기

◆요단 골짜기

요단 골짜기 지역은 성경에서 아주 빈
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지역이다. 요단강
은 레바논 산들, 특히 헬몬산으로부터
발원하여 디베라 바다(해저 212m 갈릴
리 호수)로 흘러들고,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사해(해저 약 400m)까
지 이어 흐르고 있는 길고 가는 강이다.
강의 전체 길이는 360km 정도이지만 실제
물이 흐르고 있는 길이는 200km 정도이
다.
1948년 이후로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
수에서 야르비스 강까지, 1967년 이후로
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요르
단 간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교회오빠

일생 함께 할 배우자 만나기 위한 노력 5가지

하나님은 노력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
고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
태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
자'라는 이유로 사울 왕과 나라를 믿음
으로 섬겼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
를 짊어지시기까지 아픔을 치료하고 복
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셨다. 우리가 한
명뿐인 배우자를 찾는 것은 인생의 전부
가 아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까지 다
른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십마(Shibmah)

십마는 아모리 사람 시혼 왕을 패배시
킨 후에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된 트랜스
요르단의 목초지에 있었던 성읍이다. 후
에는 모압 족속의 수중에 있었으며, 특히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다. 제롬에 의하면
이 성읍은 헤스본에서 500보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십마는
그 중요성으로 보아 헤스본 근처에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혹자는 십마를 와
디 살마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헤스본과
느보 사이의 성읍인 쿠른 엘 킵시(Qurn
el kibsh)와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이 성
읍은 높고 편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
며, 그 넓이는 가로 283미터, 세로 95미터
정도로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텔 옛사이드에(Tell es Saidiyeh) :

사르단 언덕

요단강 동쪽의 넓은 언덕 '텔 옛사이드
에'는 성경 (수 31:6)에 등장하는 사르단
언덕이나 사본 지역을 말한다.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흙이 좋아서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그릇
들을 만들 때 이곳의 흙을 사용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발굴 작업은 1964-
1967년 펜실바니아 대학 박물관의 J. B.
Pritchard에 의하여 추진되었는데, 발굴
결과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사르단의 주
민들과 이집트, 사이프러스(구브로)와 시
리아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음이 확
인되었다. 기원전 12-13세기 경의 청동 포
도 잔과 행정건물과 파피루스, 수로 계단
등이 발견되었으며, 청동 대접이나 물고
기 모양의 상아로 된 화장품 합 등은 이
곳이 이집트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만나월드 제공

싱글 남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마음에 끌리는 모든 이성에게 만남의 가
능성을 두는 것이다. 또는 성적인 대상으
로만 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성을 데이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
고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떨
까. 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너무 오랜 기
다림이 있다면, 이상형의 기준만 높아질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보
다 하나님의 기준을 살피고 기도해야 한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자신도 다른 이에게 '단 하나뿐인 사
람'이 된다. 가치가 왔는데 답답권이 없
다면 어떻게든 반쪽을 만나기까지 본인
도 그에 상응하는 '나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은 중요하지만, 과하면 곤란해진다. 대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충분
히 마음을 터놓을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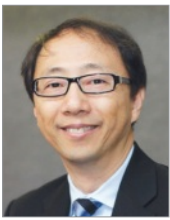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대학교 1~2학년 시절, 내 삶의 주제는 '인생무상, 삶의 희의'였다. 교회는 15년이 넘게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처치 교회(church goer)'에 불과했다. 주일 예배 참석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에 철저히 지켰지만, 예배 시간 내내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당시 내가 선택한 현실 도피 수단은 당구였다. 당구를 칠 때만큼은 영혼의 자유를 누렸다. 덕분에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성도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일 정도로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 몸은 예배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쓰리쿼션'을 묵상하는, 당시의 나는 예배의 관객이요 방관자였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해서 다들 그렇듯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유정

요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예배에 대해 경박하고 의무감 없이 배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등록한 교인들의 수에 비하면 비참할 정도로 적은 숫자만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나아가 예배를 하나의 문화행사 정도로 여긴다. 생명력을 잃고 습관적인 의식, 또는 타성에 빠져 있거나 실증을 느끼는 현대 성도들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
그들은 예배 시간 내내 수동적인 관객을 자처한다. 예배실에 들어오면 설교자가 잘 보이고, 성가대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를 찾아 앉는다. 고개를 들고 그날 예배실의 분위기를 살핀다.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강단은 잘 정리되었는지, 주보

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확인한다. 성가대의 옷매무새와 귀고리, 머리와 화장을 체크한다.

예배가 시작되면 인도자의 차림새와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찬양인도자의 멘트가 길어지면 슬며시 불평이 흘러 나온다. 성어의 마이크 음량이 조금만 커도 눈살을 찌푸린다. 연주자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연습도 안 했냐?' 비판의 화살을 겨냥한다.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관심 끄고 주보를 읽는다. 찬양 중에 손을 들거나 일어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 받는 걸까? 혹시 쇼하는 거 아니냐?', 찬양팀이 기뻐서 뛰기라도 하면 '앞에서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위험해' 판단하고 메마른 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쓴다.

대표 기도가 3분만 넘어도 자기도 모르게 시계에 눈이 간다. 성가대가 선곡을 잘했는지, 음정이 틀리지 않는지, 화음은 잘 맞는지 여부로 '오늘 연습 안 했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작아?'라며 지휘자와 성가대의 점수를 매긴다.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자의 목소리 톤과 마이크 음량, 의상에서부터 설교 제목과 기승전결 논리 전개가 주도면밀한지 평가한다. 설렁한 유머와 부적절한 예화를 못마땅해 하거나, 설교의 문제점을 적어 '예배 끝나면 전해야지' 다짐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으로 앉아있지는 않은가?

회복의 화두는 회중
예배에 대한 구도자적 감동과 지역교회 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갱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지 10년,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지역교회

에서 전임 예배디렉터로 사역했다. 도미하기 전,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던 찬양사역을 뒤로하고, 이제는 한 교회에서 예배사역 모델을 세우기 위해 내 40대를 걸었다. 부임 당시 400명 주일출석 교회에서 오직 찬양과 예배에만 집중하는 전임사역자로 섬겼다. 그 결과 중형교회에서 평신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예배사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배사역 7년째 되던 2009년 어느 날, 섬광 같은 깨달음이 왔다. "예배갱신의 화두는 회중이어야 한다." 이 자각은 내 사역의 기반을 뒤흔드는 지각변동 같은 사건이었다. 7년 동안 뛰어온 예배갱신의 주체에 회중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예배의 형식과 행정, 미디어, 음향, 이벤트, 그리고 무대 위에 서게 될 찬양인도자와 성어, 연주자, 편곡 등에 몰두하는 동안, 회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나는 평신도 예배 인도자와 예배팀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인도자들과 회중 사이를 가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드는 오류였다.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선수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회중은 7년이 지나도록 예배의 객체로 손님이었다. 여전히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관객에 불과했다. 목회자와 예배팀은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지만 회중은 소극적으로 끌려오는 노새와 같았다.

하나님이 실종되다?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회중은 예배의 현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선수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회중은 관람객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치 공연장에서 표를 사고 입장한 청중이 최고의 연주를



기대하듯이, 회중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고 안락한 의자와 쾌적한 환경, 고품격 서비스와 양질의 예배를 제공받기 원한다. 세파에 찌들어 자진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흥분, 이왕이면 정서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의식(ritual)'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에 젖어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나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다. 모르는 곡이 나오면 주보를 살살이 뒤지고, 조금 오래 서 있더라도 하면 불평이 흘러 나오는 등 예배를 관망하는 '구경꾼'으로 남아있다.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은 변화를 추구하며 예배의 '고수'로 훈련받는 동안, 회중은 이들과 점차 멀어지고 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인 하나님 자리에 회중이 앉아서 예배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실종된 것이다.

교회음악교수이자 워십리더인 배리 리츠는 회중 예배를 풋볼 경기장에 비유하여 예배인도자와 청중,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했다.그는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하나

님이 코치요, 예배인도자가 선수, 회중은 관객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정된 개념의 예배 모습은, 하나님이 유 일한 관객이요, 예배인도자가 코치, 그리고 회중이 선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미국 유학 시 예배학 수업에서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배리 리치 자신도 이 개념에 그리 큰 무게를 실어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그저 교회 음악가로서 '예배가 연주인가?(Is worship a performance?)'라는 질문을 갖고, 무대 위의 연주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회중과 하나님의 상관관계를 풀어가다 보니 처음 이 주제를 다룬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비유를 인용하여 이 개념을 설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 원리가 현대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거대한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예배의 선수는 회중이다
한 예배심포지엄에서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시기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한쪽만 강조하면 인간됨의 책임이 약화된다. 그 결과 우리의 예배는 과도하게 강요된 수동

적 예식으로 침몰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에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으나 수동적인 구경꾼 예배자를 양산해 내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자로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요 4:23). 그래서 예배는 회중석에서 बैठ고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도하시는 신적 제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하셔될 때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선심 쓰듯이 대중 드러서야 되겠는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해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영과 몸을 포함한 전인격을 사용해서 전신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대하 16:9, 막 12:30, 롬 29:12-13). 예배의 선수는 회중이다. 이는 21세기 교회를 향한 혁명적 선언이다. 선수로 뛰어와 할 회중이 관객의 자리에 앉아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설교를 비판하고, 찬양에 점수를 매기는 전황을 일삼고 있다. 회중이 관객의 위치에 나타하게 안주해 있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대재앙이다.

◆ 이유정

〈잡자는 예배를 깨우라〉(예수전도단, 2012) 발췌
이유정 (연세대학교(BA), 총신대원(M.Div.), 리버티침례신대원(Th.M., D.Min.)을 졸업하고 한빛지구촌교회 예배목사로 10년을 섬겼다. 현재 리버티대학교 예배학 한국과정 주임교수와 예배사역연구소 소장으로, 현대 예배현상의 신학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듀오 '좋은씨앗'이며, 〈오직 주 만이〉의 작곡가, 『잡자는 예배를 깨우라』와 교재 『성령의 지배를 받는 4월 예배훈련』을 집필하는 등 음악과 글로 예배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크리스천 아티스트이다. yilee@liberty.edu

코드 안에서의 즉흥연주



류정원

우리가 예배시간에 사용하는 밴드음악은 대부분 멜로디와 코드 안에서 즉흥연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하는 셈이지요. 이 부분을 클래식 연주와 크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피아노 악보는 연주할 음과 리듬이 다 기보되어 있지만 밴드음악에서 사용하는 리드시트(lead sheet, 멜로디, 가사와 코

드가 기보되어 있는 악보는 노래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구조에 따라 멜로디와 코드를 보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즉흥적으로 연주를 만드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거나, 음악의 구조가 잘 파악되지 않았을 때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보를 보고 악보대로 연주하는 클래식 연주 스타일에만 익숙할 경우, 리드시트를 보면서 연주를 하려 할 때 평소 연주하던 곡조차 제대로 연주하지 못

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곡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과 곡의 구조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리듬, 화성과 멜로디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정리해 놓으면 연주할 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악보에 기보된 코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주하기 위해서는 코드에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연주가 정확해야 하며, 귀로도 그 울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연주를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곡이 연주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음악(음원)을 듣고 똑같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살릴 수도 있고, 새롭게 편곡할 수도 있습니다.

연주하고자 하는 곡의 그림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음반을 듣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노래해본 경험이 있거나,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곡을 연주해야 할 때에는 곡의 템포나 느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연주의 준비가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곡을 접근해 보았습니

다. 내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음악적인 부분을 한 부분씩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류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현재 한국 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어노인팅 사역팀의 메인컨반으로, 사랑의교회 청년부 예배팀의 뮤직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교회 미디어 사역을 지원합니다”

기독교 OTT 풍당, 국내 9개 도시에서 미디어 아카데미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은 양질의 교회 미디어 사역을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를 국내 9개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교회의 미디어 담당자와 봉사자이며, 교육 내용은 ‘교회 음향 3시간 마스터하기’, ‘교회 미디어 원격통합제어 시스템 소개’ 등이다.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통해 교회 미디어 자료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대표 이재호)’와 함께 하며, 수료자들에게는 CGN 미디어 사역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5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에서 발표한 ‘풍당’의 한국교회 섬김 프로젝트 일환이다.

지난 콘퍼런스에서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기획을 발표한 CGN 임영광 본부장(풍당제작본부)은 “코로나 팬데믹으

로 교회 미디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비대면이라는 한계로 제한되었던 미디어 교육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미 ‘풍당 교회 네트워크’에 등록된 교회들과 이웃교회들이 미디어 사역을 위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교회의 양육 플랫폼인 ‘풍당’을 교회가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는 예배 음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기술 지원 및 음향 교육 세미나, 전문 음향 컨설팅을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비영리 사역단체다.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11월 1일 대구를 시작으로 제주, 광주(전남), 대전, 청주, 부산, 강원, 인천, 서울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링크(<https://fondantmc.coopy.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풍당’은 AI 기반의 국내 최초 기



독교 OTT로, 업선된 국내의 강사들의 말씀과 예배, 세미나, 찬양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영화와 다큐멘타리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PC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C.S.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독서 모임 참가자 모집

‘나니아와 친구들’ 주최

C.S.루이스의 페이스북 팬사이트인 ‘나니아와 친구들’이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독서토론 모임을 세울 수 있도록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들은 “순전한 기독교에 관심 있는 청년부와 학생부의 모임을 찾아가 물음

에 답하며 책이야기를 들려 드린다”라며 “단, 독서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나 진행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참가 인사는로는 ‘순전한 기독교’의 다수의 C.S.루이스의 책을 번역한 이종태 교수(서울여대 교목실장)과 C.S.루이스 덕



후의 순전한 기독교 가이드북’을 출간한 정인영 씨 등이 있다. 이상진 기자

문화선교단체 수상한거리, 2023 ‘다문화 축제’ 개최

10월 14일 홍익문화공원에서

문화선교단체 수상한거리(대표 백종범 목사)가 2023 ‘다문화 축제’를 10월 14일 홍익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 ‘더 문화 속으로, 우리 다 문화 속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 부스들이 설치되어 전통 놀이 및 체험, 전통 의상과 포토존 페인팅 등이 열린다. 또 다문화 배경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과 대학제, 국악제, 음악제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는 밴드 ‘경지도’도 참여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재한 작가 데이비드 하니프의 그림전도 개최한다. 메인 MC로는 개그맨 조훈의 부캐인 ‘홍박사님을 아세요?’의 조주봉 씨가 출연한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30 새벽을 말씀과 함께-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TV 설교/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30 TV 설교/성전교회 오원호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4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생터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20 [말씀] 화중부 목사(서울교회)	30 TV 설교/새예덴 교회 소강석 목사	4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50 노변담화
	8:00	2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20 다큐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성서학당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9:00	10 위대한 유산	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40 CGN 비전특강	1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2
오후	10:00	00 찬양의 샘 10 유관재목사의 테마기행 40 [생방송] 한국교회를論하다	00 후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생터 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2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0 더 플링 : 부르심의 소명 40 CBS TV 뉴스/CBS 뉴스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11:00	30 힐링스토리 4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충정교회 육성석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자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썅스티원) 50 십계명 속 기독교 윤리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12:00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 설교/구세군대한본영(담당 사관) 30 TV 설교/만리현성결교회 조준철 목사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찰스 스텐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00 말씀의 생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다니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미사강변 우리들교회 김기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	00 주일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신앙의 세계로 오십시오	00 TV 설교/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50 힐링토크 회복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저녁	15:00	00 사장님은 선교사 50 찬양의 샘	00 세계성지테마기행	0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 설교/약대교회 송규의 목사	00 THE 깊이 금금한 신앙, 물려든 이야기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6:00	00 KNOCK 키즈 워십 30 생명의 말씀-장승권 목사(청주서남교회)	00 말씀의 생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침 임그림의 베푸는 삶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6강 - 조성욱 목사 '내 믿음대로 믿지아다'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분당신교교회 윤귀천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지가 좋다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30 신앙에세이 40 CTS 두란노 성경교실 - 김진홍 목사	00 행복플러스 30 GOODTV 스페셜	10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5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30 TV 설교/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00 말씀의 창 -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9:00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생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청춘클래스	0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 30 TV 설교/예대교회 권주환 목사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저녁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동포리비전교회)	00 말씀의 생터 거룩한빛온정 유정상 목사 3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고향교회 리턴즈. 민음원경대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 성지가 좋다 40 복음강단 - 영통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The 사랑 50 힐링스토리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3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 50 CBS 뉴스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22:00	00 CTS 뉴스 40 다음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10 오로교회 금요철야	10 자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썅스티원)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0 율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만 찬송이야기	10 GOODTV 특별간중	00 맥스 루케이도의 거룩한 가정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10 CBS 금요철야예배/CBS금요철야예배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갯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10 주일예배실황 한스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새롭게 하소서 50 TV 설교/산위의마음교회 김영준 목사	00 새예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하나님의 숨결 20 #클립CCM 시즌2 30 CTS 두란노성경교실 인바이블	00 오 자유여	00 [말씀] 황인철 목사(홀리톤장로교회)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40 TV 설교/김양재 목사의 우리들말씀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20 송정미의 아름다운 만남	00 명설교 인철 제2교회 이건영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0 TV 설교/말씀과 함께(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성교회 양춘길 목사 3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Kyle Ideman's Jesus' Vision for Your Life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0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2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흠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생명의 말씀-전대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마인은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스페셜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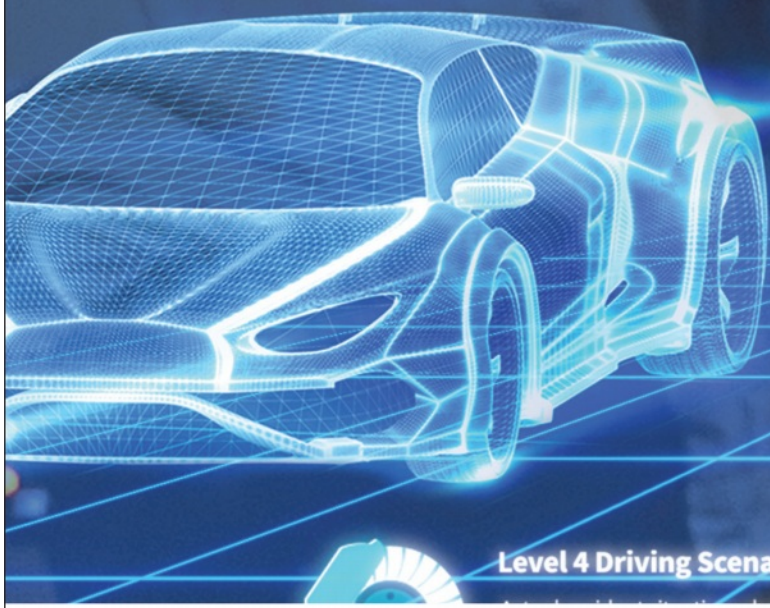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